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1호 [루게 제25600호] 주제 106 (2017)년 4월 1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7》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7》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육군상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성 부상 육군상장 윤동현동지가 맞이하시였다.

경기대회는 탱크들의 차단물극복능력과 타격능력을 확정하며 탱크병부대, 구분대들이 그 어떤 전투정황속에서도 맞닥뜨리는 자연계선과 차단물들을 신속히 극복하고 높은 기동속도를 보장하면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기 위한 전투행동방법을 숙명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대회에는 대련합부대들에서 선발된 탱크중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대회는 추첨으로 정한 대련합부대별 순서대로 출발한 탱크들이 3.6km의 주로에 설치한 8개 계선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이동목표와 부동목표를 사격한 다음 운전점수와 사격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에 참가한 탱크병들의 가슴가슴은 극악무도한 침략의 무리들을 멸적의 무적탈출로 바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짓겨버리고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야말 전투적열망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경기대회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출발구령이 내려자 원우격멸의 함성인양 무적침략의 동음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쌓이고 쌓인 분노와 적개성이 만장약된 무적의 철마들이 성난 호방이마냥 질풍처럼 내달리었다.

여울, 꿩도다리, 산악경사, 반탱크족, 반탱크벽, 산지전호, 산지도로 등 실전을 가사하여 설치한 각종 장애물들을 단숨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훈련이자 전투이며 전쟁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 민족의 운명을 걸고 훈련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아무리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추고 훌륭한 전법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훈련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첨예한 정세는 인민군장병들이 훈련을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한자레한자레의 격전과 같이 여기고 훈련의 불도그니속에서 자기 부대, 구분대의 전투력을 일당백으로 다지는 데 총력을 집중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사상과 현대전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당의 훈련혁명 5대방침을 중심고리, 종자로 틀어쥐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기에 참가한 탱크병들을 뭉소 만나시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경기에서 우수한 단위는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 1기 훈련에서 전군의 모범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탱크병들이 탱크병싸움준비를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무소불의로 적진을 짓밟개 버리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경기대회참가자들은 불켜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시고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의 배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백두산 훈련열풍속에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이요 미래인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한없이 귀중한 사회주의 내 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해갈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극복하면서 돌진하는 탱크들의 기상은 백두산번개였고 번속강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명중포탄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자들의 몸뚱아리를 가차없이 불태워버리는 복수의 용암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노도저 전진하는 무적의 철마들을 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탱크들의 성능이 대단하다고, 가파로운 언덕도 날아 넘다싶이 하며 최대속도로 달리는데 정말 놀만 하다고, 역시 탱크는 우리 인민군대의 상징이고 무적주먹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기대회는 우리에게 대한 남강도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분별없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 악착한 제재, 압박의 도수가 강화될수록,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규모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원우격멸의 총검을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고도의 격동상대에서 하늘과 땅, 바다초소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조국통일대전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무적침습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기대회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 제966대련합부대, 제567대련합부대, 제313대련합부대, 제233대련합부대, 제604대련합부대, 제593대련합부대, 제287대련합부대, 제337대련합부대, 제324대련합부대, 제526대련합부대, 제549대련합부대, 제264대련합부대, 제757대련합부대, 제671대련합부대 순위로 끝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경기를 통하여 우리 탱크병들이 무적의 철마를 몰고 남반부해방작전지대를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며 그 어떤 전투임무도 자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전찌매기싸움군대로 역세게 준비되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7》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2011년 12월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최격타격훈련을 지도하신 종합훈련장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지기 위한 오늘의 훈련길, 훈련혁명의 길이 조국통일의 열병광장과 잇닿아있다는 확고한 판점을 가지고 순간도 헛눈을 파는 일이 없이 분초를 쫓아가며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해 헌신과 로고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진보장구분대와의 협동밀에 차단물극복훈련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기동력과 타격력, 운전술과 시격술을 높이기 위한데 모를 막고 만능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며 해마다 경기방식을 새롭게 할데 대한 문제 등 탱크병부대, 구분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제966대련합부대 최격타격훈련을 지도하신 종합훈련장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지기 위한 오늘의 훈련길, 훈련혁명의 길이 조국통일의 열병광장과 잇닿아있다는 확고한 판점을 가지고 순간도 헛눈을 파는 일이 없이 분초를 쫓아가며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해 헌신과 로고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진보장구분대와의 협동밀에 차단물극복훈련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기동력과 타격력, 운전술과 시격술을 높이기 위한데 모를 막고 만능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며 해마다 경기방식을 새롭게 할데 대한 문제 등 탱크병부대, 구분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제966대련합부대 최격타격훈련을 지도하신 종합훈련장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지기 위한 오늘의 훈련길, 훈련혁명의 길이 조국통일의 열병광장과 잇닿아있다는 확고한 판점을 가지고 순간도 헛눈을 파는 일이 없이 분초를 쫓아가며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해 헌신과 로고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진보장구분대와의 협동밀에 차단물극복훈련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기동력과 타격력, 운전술과 시격술을 높이기 위한데 모를 막고 만능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며 해마다 경기방식을 새롭게 할데 대한 문제 등 탱크병부대, 구분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수령님 인민과 함께 계시며 만리마시대를 축복하신다

우리는 지금 천리마주역에 높이 모신 위대한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앞에 서있다.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대제국을 건설로 역세에 발돋움하는 우리 로동계급속에 계시며 오늘도 승리의 심금을 북돋아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시는 어머니수령님.

지금도 불어오는 미풍에 귀가울이 느리던 강철이 있어야 풍상, 기업소 불을 북구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확충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할수있을수 있습니다라고 절실히 고시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아 금시 들려올듯...

인민의 행복은 이렇게 강철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수 있다.

어머니수령님 탄생 105돐을 앞두고 천리마의 고향 강선방에 선 우리의 상징은 참으로 뜨겁다.

강철에서 꽃피는 인민의 행복년월 모습, 약동하는 조국의 벽한 슬겜이 어기서 다 느껴지는듯싶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께서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기에 앞서 인민들에게 무량한 새 조선을 건설해 주시려고, 미제국주의와의 존엄한 전쟁을 이겨내고 전대미문의 영웅사회를 창조한 그 인민에게 세상이 부림없는 행복찬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세기신 위대한 헌신의 자국이 시작되지 않았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은 수령님께서 역사에 뚜렷없는 난관과 시험을 헤치며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승리를 열쳐오게 한 근본비결이었다.》

강선방, 력사의 그 나날에는 너무도 조용히 새겨진 우리 수령님의 현저지도였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 혁명사에 새겨준 철의 전리는 얼마나 심오한것이며 강선방의 돌을 이 인민에게 가져다준 행복의 메아리는 얼마나 진귀한 귀가였었던가.

그 강선방이 있어 세상에 없는 천리마시대가 태어났고 그 길에 이어 유망한 대인의 사업체제와 정선파정선, 정선파정선 나섰으며 우리 조국이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올라서고 인민의 력원이 일떠세워졌다.

이제는 강선방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인민의 가슴속에 남아있도록 뜨겁게 새겨지고있는 잊지 못할 길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강선방을 걸으신 것은 비단 강철로동계급만을 만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인민의 목소

리를 들으시고 인민의 요구를 아시기 위해, 인민의 행복을 찾아오고 인민이 잠잘 날을 알았기서라고 인민을 찾아가신 길이었다.

강선방의 강철은 결코 전기로에서만 끓여지는것이 아니었던것이다.

주제 45 (1956)년 12월 28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강선방(당시)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열의 회가 꽃피는 때였다.

제강소당위원장인 한 녀름님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제 곧 가두면철들의 협의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빨리 준비하라고 하는것이였다.

뜻밖의 소식이 당황한 그는 어떻게 할까를 몰라하였다. 나라밖에 그토록 분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선방에서 어떻게 하시어 인민에게 강철을 찾아오시었는데 왜 우리 가정부인들까지 만나주시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시키는데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가 등 애로되는 문제를 다 이야기하라고 하시였다.

그들의 따뜻한 물음에 거동되자 한사람씩 대답을 하나둘 차례로 시작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정중히 드리고나서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조심조심 말씀드리였다.

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청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락은 잊어지지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가정부인들이 제일 인기가되는 문제들을 추측하여 해아려주시며 이웃집들과 인민들, 녀름당제들이 생활이 어려운 세태들을 잘 살펴봐주며 대하여 이르시였다.

이때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 녀름들과 한참 담화를 하시는데 강내에서 어딘가의 정업거림소리가 멍뚱 울리더니 이어 으앙- 하는 정음은 울음소리가 려지였다.

협의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쪽으로 돌리였다. 당사자인 어머니는 예상치 못했던 일대 열음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그 녀름을 불러세우시고는 자대로 논논길로 바라보시며 일었으니 그 자리에 앉아 빨리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르시였다.

순간 협의회참가자들의 가슴속에 는 원정아버지와 같이 다정다감인 인자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함몰의 정이 차넘치였다.

환호는 그의 인정에 이끌려 녀름들이 앞을 다투어 일어났다.

그들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서 혁명과 건설을 하여온 뜻깊은 나날에 얼마나 눈물겨운 사연들이 새겨져있는지 다는 모를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강도들의 영욕으로 괴로워 된 황해제철소(당시)를 현지지도하시기 위하여 길을 떠나셨고 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황급히 그에게 다가서더니 《수령님! 매일매일 건강악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스물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전정때문에 어머니수령님안에 가보시어 못했는데 이제는 정정도 되었으니 어머니안소에 잠시라도 불려가도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어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였다.

승용차 문손잡이를 잡으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돌아보시였다.

해마다 그때때면 강안에서머님생과 이 더욱 간절해지신 우리 수령님 이시다. 전경이 방금 끝난 그해의 7월에도 천리 만길도 아니고 지척에 푸신 어머니안소에 다녀오실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시였으리.

머구사 전정의 3년세월 평양-남포길을 오가시면서도 언제 한번 들려보시지 못한 만경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길을 땅에 막고 서있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길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내대신 동무가 만경대에 다녀오시라고 이 드시고는 황해제철소를 향해 길을 떠나시였다.

일군의 두눈에는 뜨거운것이 뿜 뿜 나왔다.

인민들에게 행복과 락원의 강산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일신의 고충도, 사무치는 그리움도 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시고 만경대를 직접에 두고도 최후를 누이는 용해공들을 만나 시기를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신 어머니수령님.

우리 수령님은 이런분이였다.

남이 가고 달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니수령님을 생각하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른것을 다 바치신 불멸의 서사시이다.

어머니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이란 무엇이고 삶의 보람이란 어떤것인가를 비로소 알며 그 모든것을 마음껏 누리 는 우리 인민이지만

시련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하여온 뜻깊은 나날에 얼마나 눈물겨운 사연들이 새겨져있는지 다는 모를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강도들의 영욕으로 괴로워 된 황해제철소(당시)를 현지지도하시기 위하여 길을 떠나셨고 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황급히 그에게 다가서더니 《수령님! 매일매일 건강악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스물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전정때문에 어머니수령님안에 가보시어 못했는데 이제는 정정도 되었으니 어머니안소에 잠시라도 불려가도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어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이라는 데지우에 행복의 기쁨을 뿌리시고 한평생 가꾸어오신 주제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태양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으로 거언히 솟아올라 주제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락관하시며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인민들에게 계시면서 선군의 기적과 승리를 불어오는 만리마시대를 축복해 주신다.

영원한 태양의 축복을 안겨주시다.

글 본사기자 김 준 혁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제해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어있으며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성하시는 근본비결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80여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 심오한 사상론과 비범한 명도력, 거대한 혁명실력으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을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 가운데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지도사상,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신 업적도 있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주체형의 정치조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투쟁을 건설하신 업적도 있으며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인민으로 키우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업적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고귀한 재보이다. 우리 수령님과 같이 당대에 인민을 위하여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명도자는 동시대에 없다.

명제에 바다가 되고 땅이 되는데 하늘에 닿을 어머니수령님의 이 모든 불멸의 업적들을 하나둘 합치면 그것은 바로 인민위천이다. 이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성하게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정력적으로 벌리신 사상론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는 인민위천의 신조로 일관되어있다. 어머니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불러일으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시는 나날에 사람,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원리를 발전하시였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의 합법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독창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며 독립일이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어머니수령님의 사상론이 끝없이 심오하면서도 내용이 명백하고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수

있을 통속적인것으로 되어있는데도, 온 세계에 퍼급되어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뚫어지게 뚫었다 그것이 인민중심, 인민존중, 인민사랑으로 일관되어있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운명적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여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며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거대한 변혁적역활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위천의 숭고한 비범을 혁명실현에 빛나게 구현하신 회색의 정치가, 인민의 어머니이다.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인민대중은 언제나 신성하고 힘있는 존재였고 모든것의 선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위천의 사상으로 부터 출발하여 우리 땅과 국가, 군대를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 인민의 국가, 인민의 군대로 건설하시고 이 땅위에 세상에 볼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고 그 승리를 하신 인민을 믿어주고 그의 버림을 받으면 백만 배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혁명앞에

루디른 정원이 꾸려진 시연

강산에 겨울기운이 남아 있던 주제 66 (1977)년 2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어 여기 정원에 인민을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풍과 같은 농작물을 심어 하겠다고 하시였다.

뜻밖의 이르게 일군은 싣듯 대답을 드릴수가 없었다. 그해로 말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금수산의 사당(당시)에서 철무를 보기 시작하신 첫해였다.

한평생 로연시던 전장길, 밭고 힘찬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며 인민을 위해 흘린 땀을 토로할 바쳐가시는 어머니수령님을 세상에 가장 훌륭한 점무실에게

모시고있을것이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였다.

그런데 그 정원은 마저 농작물을 심으라고 하시는데 붙어있는 길은 밭이내 전회로 토전의 상태를 들으시었고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면 언제나 이곳에 먼저 둘러서서 그동안의 행편을 알아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

이제는 정정도 되었으니 어머니안소에 잠시라도 불려가도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어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였다.

모든 가정에서 행복이 넘치려면 남수록 강철생산은 더욱 높아져나간다. 그것은 로동자들이 가정일에

승어랭수랑이 전하는 이야기

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승어랭수랑은 평양의 유명한 특산물의 하나라고 하시며 승어랭수랑은 승어랭을 따내고 토막을 찢다를 추우살을 몇달 개월전에 써서 함께 찬물에 넣고 끓이면 된다고, 승어랭수랑은 찬물에 넣고 끓여야 그렇게 하지 않고 데운물에 넣고 끓이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승어랭 찬물에 넣고 끓인다고 하여 승어랭수랑이라고 한다고 하시였다.

전문가들도 무척일 정도로 로리방면에 대하여 상세히 가르쳐주시는 그의 모습은 한 나라의 수령이거기보다도

자식들에게 생활의 사다사를 일깨워주는 어머니의 인자하심 모습과도이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과음을 즐기시며 오늘 이렇게 승어랭수랑을 차려주셨을 때 승어랭수랑을 차려준것은 동무들이 인민들에게 승어랭수랑을 비롯한 물고기포리들을 찢구지 않고 먹이기 위해 아글라달 애쓰기를 바라시어라고 절절히 고시하시였다.

승어랭수랑을 뒤 찾아주시고 그 로리방면까지 가르쳐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무한한 인민사랑의 세계 앞에서 일군들은 목이 딱 매어올랐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진행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경축하여 제5차 4월의 봄 인민 예술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우리 혁명의 개척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주체혁명위업,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른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전인민적인 대예술축전이다.

이번 축전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기기 위한 전민총동원력이 합일되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열리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과 예술선진대예술인들, 기능예술선봉대원들, 예술소조원들이 참가하는 축전은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수도의 극장, 회관 등에서 4개 부류로 나뉘어 진행되며 요율축전도 있게 된다.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의 마음을 담은 수령홍보의 송가, 영성축원의 노래들이 높이 울려 퍼지게 될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마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 천만군민의 철심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며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로랑철을 맞으며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활짝 피워가고있다. -김일성화점정원화전시관에서- 본사기자 혁운

우리 민족의 긍지와 영광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자

조국 땅 방방곡곡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거룩한 자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름, 모든 단원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장군님의 영도사적을 빛내고 유능을 철저히 발휘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뜻깊은 4월이 왔다. 영광과 농촌, 가정 등

은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뜨겁게 여겨 있는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되새겨보며 한없이 그리움에 젖어있는 우리 천만 군민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이 땅에 빛나는 현실로 활짝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맹세로 더욱더 불라고있다.

고 기술이 높은 사람이 받들도록 뒤떨어진 용해공을 도와주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한 용해공의 가정사를 온 집안이 달려들어 풀어주는것이 예사로움 일로 되고 있는 이곳에서 천리마의 전통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만리마속도의 모험으로 되고있다.

과학기술을 만리마의 고비로

역세계 특이한 용해공들은 생산성을 1.2배로 높이면서 원단위소비를 줄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10여건이나 달아붙여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완성의 앞장에 섰다. 수일명령은 감자재배를 완전히 부흥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논부신 성과를 안이왔으며 강철을 개선하고 같은 강철을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할수 있는 케르르 기술개발의 생산방법들도 과학

기술의 위력으로 미려하였다. 창조와 혁신으로 뛰어넘어지는 용해공에서 우리와 만년 박업신 직장장은 용해공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마음속까지 울며지었다.

《아버지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강철중산성 과로 당과 수평을 검사유위안 이제날의 부모를처럼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을 만리마속도로 달리고있다. 우리가 시켰습니다.》

본사기자 전성삼

포전당택일제의 생활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수화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수확이 좋은 과일 나무를 더 많이 심고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농업정보당 과일수확을 훨씬 높이기 위한 실천투쟁으로 온 농장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농부보리단치모듬겨울씨가 걸속되었다는 기분 소식을 전해 주며 리일군인 한성시봉수가 하는 말이 농장을 떠나는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논벼씨뿌리기에서도 다수화의 열매를 맺을 농민근로자들의 열의는 정말 대단합니다. 영광의 대지, 북반은 전야에 풍년날거리 높이높이 쌓아놓고 만리마신구자대 회장에 농지높이 높이서라것이 우리 약력리사람들의 한결같은 실천입니다.》

본사기자 장은영

천리마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가리

태양의 명칭이 빛나는 4월이 왔다. 이 땅에 태를 품은 사람 누구나가 다 그리워하던 천리마 제강원합기소 동계공급에 있어서 해마다 맞는 4월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보답의 열정을 더해주는 뜻깊은 달이다.

지금도 가슴뜨겁게 울려온다. 함일의 초원이 서민 평택신복차원으로 조국에 개선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몸걸고오셨던 그 영광을 뒤에 남기고오 강선로동계급을 먼저 찾았으며 새 조국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 력사의 땅이다. 우리 수령님 전하속에 쌓인 귀로도 추실 사이없이 또다시 이곳을 찾았으며 무진년 벽제우에 앉은 시 미제를 쳐부신 영웅조선의 기상을 강선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시었다.

영광의 대지에 넘치는 애국의 열정

해마다 4월이 오면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나라전야, 얼마전 우리는 영광의 대지에 또다시 풍년가을을 걸치기 위해 불철저병농전투로 불붙고있는 속천군 약전농장을 찾았다.

벼씨뿌리기와 불보리단치용제기 등 당원한 영농전투에서 군적으로 제일 앞서나가고있는 비결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판리위원장 김성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우리 농장을 찾으신것은 그날은 함일의 념정영웅 김정숙동지의 서지

다심한 사랑은 평범한 가정에도

뜻깊은 4월을 앞두고 귀여운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든 강구역 신원동사무소 혁명사적보존소에 소중히 보관되어있는 두개의 단지를 마구잡이로 찾았다.

《저 단지를 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신원동의 어느 한 가정에 들려서야 온수 열이 보신 사연같은 사적물입니다.》

이런통 일군인 김순숙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43인민반 2층 2호로 안내하였다. 우리는 김주인 리평상봉무로 더 단지에 있는 가슴뜨거운 사연을 알게 되었다.

은 나라가 당장 20살을 뜻깊게 경축한 기쁨에 넘쳐있던 주체54(1965)년 10월 24일 신원동 인민들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맞이하였다. 많은 시간을 마치시며 여러 가정들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이 집에도 들리셨다. 부엌에 들어오셔서 가지런히 놓여있는 단지부경을 친히 열어보시며 무엇을 해놓았는지 보시고 그런다고 지어내 닦아내 주셨다.

본사기자 장은영



↑ 중구역 대동문식료품상점에서 강구역 청신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영원불멸할 혁명송가를 들으며

향학일로 가슴 불태우시며 남면 저 이문새벽을 맞이하시었고 함일의 혁명진리를 헤치시던 그 날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무거운 사명감으로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등산봉림에서, 실천총 봉이치는 땅에서 심장을 뛰이시며 진진함을 지새우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그렇게 우리 수령님 남면저 맞이하신 무거운 새벽, 해가 뜨신 새벽길들이 그후로 장백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의 피어넘어오는 이적의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재생을 맞이한

자주시대의 래양은 영원하다

류의 절절한 소망이 풀린 력사의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민대의 초기집에서 탄생하시어 자주시대의 위대한 래양으로 솟아오르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성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자주적문명적의 길목을 밝혀주시고 가장 거창한 민족의 새시대를, 자주시대를 펼쳐주시었다.

주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의 총체이고 인간사회의 최고정화이며 삶과 투쟁의 기치이다. 진보적인류가 정중하는 수령님의 최후명언 이인민중의 사상이 주체에 뿌리를 두었으며 세계 수억만 심장을 뚫어주는 절세위인의 영도사적의 전통이 이 두 글자에서 집대성되어있다. 주체사상의 말씀은 이제 민족의 자부심을 승려하고 이고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인의 모습에 있으며 인류자주위실현의 광명한 미래도 있다.

인류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전세계 근로인민대중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새겼고 그이께서 펼치신 자주의 새시대를 보았다. 주체사상이 있어 지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세계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만제투쟁과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영웅투사들로, 력사발전의 창조자들로 자라났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만제투쟁으로 다 창조된 혁명불가담운동의 거대한 전진도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배려 높고 생각할수 없다.

20세기는 명실공히 인류사상사

김성주 소학교를 찾아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대원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지 못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 수령님의 새벽, 그것은 정녕 조국과 민족의 푸르른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시며 승리와 번영의 리명을 불태우는 애국헌신의 길이었거니.

조국상징에 밝아오는 리명과 함께 승업히 매아리치는 영성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금 길잡이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오날도 조국의 첫 새벽봉을 아신다고, 이 땅의 새벽길에 자신의 첫 자욱을 그칠새로 내걸으시며 사회주의건설을 무궁한 번영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로 향도하시다고!

본사기자 장철현

더 높이를 울려가라 사랑의 종소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대원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지 못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 수령님의 새벽, 그것은 정녕 조국과 민족의 푸르른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시며 승리와 번영의 리명을 불태우는 애국헌신의 길이었거니.

조국상징에 밝아오는 리명과 함께 승업히 매아리치는 영성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금 길잡이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오날도 조국의 첫 새벽봉을 아신다고, 이 땅의 새벽길에 자신의 첫 자욱을 그칠새로 내걸으시며 사회주의건설을 무궁한 번영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로 향도하시다고!

본사기자 장철현

리효진

리효진은 평원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리효진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불꽃을 피웠다. 10대의 어린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모국하고 세련된 영도인민대중의 자부심을 승려하고 이고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인의 모습에 있으며 인류자주위실현의 광명한 미래도 있다.

인류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전세계 근로인민대중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새겼고 그이께서 펼치신 자주의 새시대를 보았다. 주체사상이 있어 지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세계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만제투쟁과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영웅투사들로, 력사발전의 창조자들로 자라났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만제투쟁으로 다 창조된 혁명불가담운동의 거대한 전진도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배려 높고 생각할수 없다.

20세기는 명실공히 인류사상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태양이시다. 존함그대로 인민의 태양, 인류의 태양이시다.

허기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도 그들의 존함을 모시고 피어났다. 세계 5대륙의 가장 진귀한 신비물인 조신의 보합산에 자리잡은 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되어 세상에 없는 태양정충의 보물고를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살을 맞으며 행성의 방방곡곡에서는 《김일성주체님은 세계를 밝혀주는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만민찬송의 환호성이 더 높이 울려 퍼진다. 인류자주위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탁월한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이 뚜렷한 상징으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향방에 거연히 서시어 력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를 개척하고 빛내이신 인류의 태양이시다.

오늘의 시대는 자주시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력사의 새시대이다. 20세기 초엽만 해도 상상할수 없었던 새시대가 열리고있다.

주체1(1912)년 4월 15일은 탁월한 영도자를 목마르게 고대하던 인

리효진

리효진은 평원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리효진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불꽃을 피웠다. 10대의 어린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모국하고 세련된 영도인민대중의 자부심을 승려하고 이고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인의 모습에 있으며 인류자주위실현의 광명한 미래도 있다.

인류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전세계 근로인민대중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새겼고 그이께서 펼치신 자주의 새시대를 보았다. 주체사상이 있어 지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세계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만제투쟁과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영웅투사들로, 력사발전의 창조자들로 자라났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만제투쟁으로 다 창조된 혁명불가담운동의 거대한 전진도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배려 높고 생각할수 없다.

20세기는 명실공히 인류사상사

리효진

리효진은 평원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리효진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불꽃을 피웠다. 10대의 어린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모국하고 세련된 영도인민대중의 자부심을 승려하고 이고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인의 모습에 있으며 인류자주위실현의 광명한 미래도 있다.

인류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전세계 근로인민대중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새겼고 그이께서 펼치신 자주의 새시대를 보았다. 주체사상이 있어 지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세계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만제투쟁과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영웅투사들로, 력사발전의 창조자들로 자라났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만제투쟁으로 다 창조된 혁명불가담운동의 거대한 전진도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배려 높고 생각할수 없다.

20세기는 명실공히 인류사상사

리효진

리효진은 평원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리효진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불꽃을 피웠다. 10대의 어린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모국하고 세련된 영도인민대중의 자부심을 승려하고 이고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인의 모습에 있으며 인류자주위실현의 광명한 미래도 있다.

인류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전세계 근로인민대중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새겼고 그이께서 펼치신 자주의 새시대를 보았다. 주체사상이 있어 지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세계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만제투쟁과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영웅투사들로, 력사발전의 창조자들로 자라났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만제투쟁으로 다 창조된 혁명불가담운동의 거대한 전진도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배려 높고 생각할수 없다.

20세기는 명실공히 인류사상사

리효진

리효진은 평원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리효진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불꽃을 피웠다. 10대의 어린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모국하고 세련된 영도인민대중의 자부심을 승려하고 이고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인의 모습에 있으며 인류자주위실현의 광명한 미래도 있다.

인류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전세계 근로인민대중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새겼고 그이께서 펼치신 자주의 새시대를 보았다. 주체사상이 있어 지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세계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만제투쟁과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영웅투사들로, 력사발전의 창조자들로 자라났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만제투쟁으로 다 창조된 혁명불가담운동의 거대한 전진도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배려 높고 생각할수 없다.

20세기는 명실공히 인류사상사

